

전남도, 지역R&D센터 활용 '혁신기업 투자유치' 추진

“R&D센터, 기업 고충 해소 및 투자유치 적극 나설 것”

윤병태 전라남도 정부부지사는 14일 지난 9월 회선에 이어 순천소재 지역 R&D 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도내 기업의 고충 해소와 먹거리 창출은 물론 미래 혁신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순천 해룡산단에 위치한 첨단고무소재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순천 출신 도의원인 임종기·신민호 의원과 임채영 순천부시장, 정정설 첨단고무소재지원센터장, 유재욱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장, 조재익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장, 손동환 전남국방벤처센터장과 화학·철강산업 기업인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윤 부지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산업생태계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어 기업 기술력 확보와 기반한 아이디어 발굴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며 R&D센터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R&D센터의 기술력을 활용해 지역 신산업을 이끌 혁신기업을 투자유치 타깃으로 정하고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정설 첨단고무소재지원센터장은 “지난 5월 첨단고무소재지원센터를 개소해 도내 업체의 기능성 소재개발을 의뢰받아 제품 상용화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기능 고무소재 개발 지원과 수

요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욱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장은 “올해 시작한 마그네슘 소재 실증사업을 진행하면서 12개 기업과 접촉해 전남에 투자유치키로 협의 중에 있다”며 “2023년까지 관련 기업을 모두 유치해 중장기적으로 전남에 마그네슘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R&D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인들도 산업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기행도 쉼기성 대표는 “기업이 R&D를 수행하기에 시간적,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지자체와 R&D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해 기업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형태경 포토캠스 대표는 “기업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며 “R&D센터와 기업이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줄 것”도 아울러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 부지사는 “도와 시군은 기업과 R&D센터가 협력사업을 추진해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R&D센터들도 기업의 요구 사항을 파악해 적극 대응하고, 명확한 기술개선 방향 제시와 함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발 벗고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농어촌공 해남·완도지사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지사장 김규장)는 10월 12일(월) 해남군 삼산면 농암마을 이**씨 자택을 방문하여 직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농촌 집 고쳐주기”사업은 다습동지북지재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김정관 기자

이날 봉사활동은 집이 낡고 오래되어 생활환경이 취약한 가구의 도배, 장판교체, 집 청소 등 작업을 실시했으며, 김규장 지사장은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농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참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 여수 여천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천동 일원 0.36㎢ 불법적 투기행위 사전 차단

전라남도는 여수시 여천동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여수시 여천동 및 선원동 일원 0.36㎢ 규모 553개 필지로,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025년 10월 12일까지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지정·공고됐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100㎡를 초과한 녹지지역 토지 및 90㎡ 초과한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여수시장의 의무를 이행토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예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여천역 주변 개발사업 추진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며 “실수요자의 정상거래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엽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4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 유치기업인 쉼미소정보기술, 쉼브이로이드, 쉼비티에프테크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도 쉼브이로이드 대표이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종업 쉼비티에프테크 대표이사, 안동욱 쉼미소정보기술 대표이사. /광주시 제공

(주)미소정보기술, (주)브이로이드, (주)비티에프테크 광주에 등지

광주시, 3개 업체와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 업무협약 AI분야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추진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 유치기업인 쉼미소정보기술, 쉼브이로이드, 쉼비티에프테크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39-41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업별 법인설립 및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쉼미소정보기술은 빅데이터 및 상권 분석, 의료정보 분석연구 및 솔루션 개발, 소셜 데이터 수집 및 트렌드 분석, 자체 개발 솔루션 SmartAI, SmartTA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 플랫폼 공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쉼브이로이드는 인공지능 플랫폼 및 기업형 챗봇 솔루션 개발, 인공지능 기반 음성 및 이미지 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쉼비티에프테크는 다중 음성시스템이 장착된 온라인미디어 서비스 구현 방법에 특허를 냈으며, TTS(Text to Speech, 음성합성) 기반 재난문자 음성제공 및 오디오 복 솔루션 제공, 통합 복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쉼미소정보기술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제품 개발과 서비스를 위해 광주법인 설립(쉼브이로

이드는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분사 이전(쉼비티에프테크는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를 위해 분사 이전)으로 인공지능 기반 생태계 조성 및 광주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공지능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및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정책 자문 ▲인공지능 분야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사 이전, 광주법인 및 지역사무소 신설 추진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맹환금 기자

코스피	↓	2,378.54(-1.02)
코스닥	↓	860.46(-1.31)
원·달러·환율	↑	1,146.90(+0.08)
금리(국고채 3년)	■	0.92(0.00)



2021년형 K7 출시

고객 선호 사양 기본 탑재 전차식 변속 레버 등 향상

기아자동차가 12일(월) 상품성을 강화한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 2021년형 K7을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2021년형 K7은 새로운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추가하고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2021년형 K7에 시그니처인 인탈리오(음각) 라디에이터 그릴을 바탕으로 항공기 날개를 형상화한 패턴을 반복 적용해 비행기의 힘찬 이륙을 연상케 하는 ‘커스텀 그릴’을 새롭게 추가하며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신규 외장 색상 2종인 스틸 그레이와 인터스텔라 그레이를 적용해 고급감을 높였다. 이와 함께 고객 선호 편의 사양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전차식 변속 레버(SBW), 패들 슈프트, 고성능 공기 청정 필터를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에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2021년형 K7에서는 향상된 운전 편의성을 경험할 수 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FCA-JT,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Junction Turning)를 신규 탑재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준다.

또한 음성 인식 차량 제어 범위를 확대해 운전자가 음성으로 창문을 여닫을 수 있고 시트 및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을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하다. 기아차는 2021년형 K7의 편안한 승차감과 주행 성능 강화를 위해 리어 글라스 두께와 운전석 휠 가드 흡음 면적을 증대하는 등 소음진동(NVH, Noise-Vibration-Harshness)도 개선했다. /이문수 기자 zkj0000@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를 창립한 김경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장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언론환경은 우리 기자들에게 멀티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보혁명의 선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채널 다매체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고 정보선택의 기회가 크게 확대된 반면 기존매체와 뉴미디어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시대의 언론과 언론인에게도 변화지 않는 금과옥조(金科玉條)는 정론직필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제공입니다. 기자는 진실과 정의를 통해 시대를 깨우치고 이끌어가는데 신명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를 새롭게 창립한 이유도 바로 이런 구심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전기협’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합한 언론상을 확립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우리 기자들이 공정성, 공익성, 객관성, 정확성, 책임성을 가지고 그 사명과 소임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균형을 잡고 사회를 세상을 이끌어가는 언론인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선배 언론인들이 불의나 부당한 권력에 분연히 맞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오셨듯이 우리들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바르고 진실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봅시다. 감사합니다.




